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평성합성가죽공장과 백두산건축연구원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평성합성가죽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성합성가죽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깨끗하고 번듯하게 개건공사를 정말 잘하였다고, 결만 보고서도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공장을 찾으시여 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려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을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백두산철세위인들의 현지지도표식비를 보시고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성합성가죽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비롯한 귀중한 사적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각별한 사랑속에 이 공장은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나라의 보배공장으로 장성장화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들을 밝고 정중히 모시였다고 하시면서 혁명사적교양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공장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깊이 관심하시고 중시하신 공장에서 일한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살며 투쟁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부직포생산공정, 건식합성가죽생산공정, 습식합성가죽생산공정, 가방생산공정, 과학기술보급실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관리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몸소 마련해주신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깃들어있는 현대적인 부직포생산설비들과 습식합성가죽생산설비들을 눈

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고있을뿐만 아니라 낡은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작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잘하고있다고 하시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김과구부림세기 등 물리적성질에 있어서나 질감에 있어서 천연가죽에 못지 않은 질 좋은 합성가죽을 생산하기 위해 창조적지혜를 바쳐가고있으며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여러가지 가방들을 만들기 위해 아글라글 노력하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성합성가죽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것과 함께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최대한 높일데 대한 문제,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다색화, 다양화된 세계적수준의 합성가죽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문제, 생산과 경영활동의 통합생산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구축하며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하며 종업원들의 로동생활조건과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데 대한 문제 등 공장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성합성가죽공장이 합성가죽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능력이 큰 공장으로서 진땀땀만큼 생산을 정상화하고 생산량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도록 원료, 자재를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성합성가죽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현대적으로 전변된 공장을 찾고보니 기쁨도 크지만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하여 마음이 아파온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성합성가죽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질 좋은 합성가죽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공장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전설같은 인민사랑을 길이 빛내

여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백두산건축연구원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혁명사적교양실, 혁명사적물보존실,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백두산건축연구원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들을 깊은 감회속에 바라보시면서 귀중한 사적물들마다에는 주체적건축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사가 응축되어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백두산건축연구원은 당에서 맡겨주는 그 어떤 대상설계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건축창조에서 나오는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관록있는 건축창작연구집단으로 자라났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천리혜안의 예지로 백두산건축연구원과 같은 건축창작연구기지들을 품들여 꾸려주시고 주체건축의 발전방향을 휘황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떠나 오늘 이 땅에서 펼쳐지고있는 건설의 최전성기, 대번영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일군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살며 투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건축과 학기술성과전시장, 건축설계연구실, 정보자료연구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연구원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일군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과 건설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 건축물,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

현된 건축물들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건축은 고도의 예술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문명수준과 국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라고 하시면서 설계가, 건축가들은 사회주의 내 조국의 휘황한 래일을 그리며 가꾸는 미술가, 원예사라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당의 건설구상과 인민들의 리상을 반영한 설계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건축설계에서의 류사성과 반복을 철저히 배격하고 건강건물, 특색건물, 령에너르기, 령탄소건물, 다기능화된 건물 등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떠세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백두산건축연구원에서 마감건축의 국산화비중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사업, 건제품의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건축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 설계가, 건축가들의 창작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 세계건축자료들을 더 많이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설계수단들을 더욱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계의 과학성, 정확성, 신속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도록 당에서 최신형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설계수단들을 보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백두산건축연구원을 돌아보면서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일을 했다는것을 더 잘 알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당의 건축미학사상을 구현하여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수많은 건축명작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창작설계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백두산건축연구원에 대한 당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하시면서 일군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무거운 고도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백두의 선군령장을 모시여

오늘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선군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4뿔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주체101(2012)년 7월 17일 경애하는 원수님께 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것은 위대한 선군령장에 대한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신뢰와 절대적인 지지의 분출이었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획기적전환의 이정표를 아로새긴 역사적사변이었다.

일찌기 총대와 인연을 맺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의 선군위업을 계승완성하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한 군력강화를 위하여 선군장정을 끊임없이 이어오시었다.

주체101(2012)년 정초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땅크사단을 찾으신데 이어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며 병사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에게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원수님이시다.

병사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고싶은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하시며 전선시찰의 길에서 군인들과 뜨거운 정을 나누어오신 그이께서는 병사들을 위하여 지휘관도 있고 최고사령관도 있다고 하시며 숭고한 동지관, 열렬한 전우애의 가슴뜨거운 역사를 펼치시었다.

백두산형의 공격기질과 뛰어난 령군술, 무비의 담력과



환호하는 인민군장병들에게 답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드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압살, 군사적위협소동을 단호히 제압하시며 공화국의 군력을 최상최대로 강화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백두산악같은 신념과 의지, 투철한 반제자주적립장은 최대열점지역인 장제도와 무도, 월내도를 비롯한 최전연초소들에도 새겨져있고 각 군중, 병종들의 화력타격훈련들에도 어려웠다.

제3차 지하핵시험과 첫 수소탄시험에서의 성공, 전락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시험과 지상대지상중발사시험과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 시험발사의 대성공, 이것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탁월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국방공업부문에 대한 쉬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와 헌신의 로고가 안아온 력사의 기적이며 백두산대국의 강대성

에 대한 일대 시위이다. 지금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은 공포와 전율에 휩싸여있으며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선군령장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에 의해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난 인민군대의 위력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요전구들을 총횡무진하시며 새로운 시대정

신,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인민군대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지니고 총공격전의 선구자, 기수가 되어 시대적모범을 창조해나가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는 건설의 대번영기,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온 나라에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한 근본원천이었다.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인 산림복구전투의 포성이 울리고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인민들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천지개벽, 천도개벽이 일어나고있는것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마식령스키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 육아원과 애육원을 비롯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일떠서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밝은 전망이 열리고 있으며 새 세기 산업혁명이 힘있게 추진되는 속에 최첨단과학의 눈부신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고 보건과 체육 등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것이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강력한 군사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오른 공화국은 오늘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정치적주권을 보다 당당히 행사하면서 존엄과 국력을 떨치고 있다.

참으로 지난 4년간의 날과 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수호전과 강국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세기적변혁이 이룩되고 현시대 정치거장으로서의 김정은원수님의 절대적권위와 위인상이 온 세상에 힘있게 파시된 긍지높은 나날들이었다.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공화국의 앞길에는 더욱 큰 승리와 영광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눈이 내리고있었다. 마가울의 진눈깨비라 산골길을 온통 진흙탕투성이로 만들어놓았다. 차들이 심하게 들추며 힘들게 전진하였다. 고산진으로 향해가는 최고사령부행렬이었다.

시간은 새벽 2시경,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차안에서 근엄한 표정을 지으신채 졸곧 깊은 상념에 잠겨계시었다. 진눈깨비들이 느닷없이 차창에 달라붙었다가는 인차 녹아 흘러내리곤 하였다. 준엄한 시련을 예고하듯 전조등불빛에 험하게 파헤쳐진 길이 안겨들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일군의 뇌리에 얼마전에 입수한 자료가 상기되었다.

...1950년 10월 15일 미국대통령 트루먼이 태평양상에 있는 웨이크섬에 날아와 맥아더와 회담을 하였다. 미륙군장관, 미합동참모본부의장, 미래평양함대사령관 등 군부의 거두들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맥아더는 기고만장해서 호언장담하였다.

《확신성있게 말하지만 남북조선 전역에서 공식적인 저항은 갑은절(11월 23일)전에 종식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크리스마스(12월 25일)전으로 제8군을 일본으로 철수시키고 제10군단만 남겨둘것이다. 새해전으로 우리는 조선에서 대통령선거를 진행할것이며 나는 모든 점령군을 철수시킬것이다.》

그리고는 대통령앞에서 곱방대를 꺼내어 담배까지 붙여물었다.

이 소식은 즉시 온 세계에 보도되었으며 맥아더는 전선

위대한 인민의 모습

원자탄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단결의 힘

동부와 서부에 총력량을 투입하였다.

(말 그대로 총공세이다. 과연 맥아더의 호언장담을 타파할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문득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인민군군인들의 행군대오가 보였다. 캄캄한 밤인데도 질서정연하게 대렬을 짓고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군인들을 만나보자고 하시면서 차에서 내리시었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에게 다가가시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었다.

《옛, 경상북도 안동에서부터 2 000리길을 행군해오고있습니다.》

어둠속에서 한 병사의 애된 목소리가 울렸다.

나이는 몇살인가, 고향은 어딘가 다정히 물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병사의 어깨우의 카빈총을 보시며 어디서 왔는가고 물으시었다.

《후퇴과정에 적들에게서 빼앗은겁니다.》

《우린 적들의 무기와 탄약을 빼앗아 보충하군 했습니다.》

《신발이 해지면 짚신을 삼아신고 땀타드는 적들과 싸우면서 후퇴했습니다.》

군인들은 저저마다 대답을 올렸다. 그들은 앞에 계시는 분이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것을 짐작도 못하고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어둠속에서 군인들의 얼굴을 더듬어보시며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가고 또다시 물으시었다.

《최고사령부로 갑니다!》
《새로운 전투명령을 받으러 갑니다.》

최고사령부 명령만 받으면 적들과 싸워 승리할수 있는가고 하시는데 그이의 물으심에 군인들은 《미국놈들을 소멸하고 꼭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당장이라도 전선으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씩씩하게 대답올렸다.

뜨거운 눈길로 군인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무들의 기세도 좋고 신심도 좋다, 조선청년들은 죽지 않았다, 이런 청년들을 가지고 있는 조선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깊이 간직하고 당과 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힘을 꺾을 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교시하시었다.

대오에서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그이의 거룩한 모습을 넋없이 우러르지만 하였다.

다시금 그이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고요를 흔들었다.

동무들이 적들의 무기와 탄약을 빼앗아 보충하고 신발이 해지면 짚신을 삼아신고 땀타드는 적들과 싸우면서 후퇴하였다고 하는데 아주 잘하였다.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투쟁정신만 있으면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함없이 적과 싸워 이길수 있다.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도 현대적무기로 무장한 악독한 일제와 싸워 승리할수 있었던것은 그들이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강毅한 투쟁정신을 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 인민군 령대장에게 그때 일을 추억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내가 얼마전에 평안북도 벽동근방에서 안동에서부터 후퇴하여오는 부대군인들을 만나보았는데 어디로 가는 길인가고 물었더니 한 어린 전사가 최고사령부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때문인가고 다시 물으니 최고사령관동지의 새 전투명령을 받으러 간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캄캄한 밤이여서 그들은 내가 최고사령관이라는것을 몰랐습

니다. 나는 그때 애어린 전사의 말을 듣고 인민군군인들이 간직한 필승의 신념을 잘 알게 되었으며 우리는 전쟁에서 꼭 이긴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필승의 신념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군대의 힘은 원자탄이나 그 어떤 무기로도 당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래일도 이 단결의 힘으로 전진하고 승리할것입니다.》

원자탄이나 그 어떤 무기로도 당할수 없는 힘, 최고사령관과 전사들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단결의 힘으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 미국의 거만한 코대를 꺾고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왔던것이다.

본사기자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

공개편지를 보낸 남조선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별인사들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 공개편지를 보낸 남조선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별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 당국관계자
리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황교안 《국무총리》
홍용표 통일부 장관
김형식 통일부 차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리병호 정보원 원장

— 정 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 단 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지역본부
(서울본부, 강원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충북본부, 충남본부, 대전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전북본부, 부산본부, 대구경북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제주본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한국진보련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우리민족번영통일추진회의
통일광장
전국민주로동조합총련맹
《한국로동조합총련맹》
전국농민회총련맹
《한국카톨릭농민회》
농협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련합회》
《한국여성단체련합》
전국여성련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세계평화여성련합
《한국청년련대》
《21세기한국대학생련합》

전국교직원로동조합총련맹
《한국교원단체총련합회》
통일맞이 늦봄 문익환목사 기념사업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량심수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민족예술인총련합》 (민예총)
《한국예술인총련합》 (예총)
《한국작가회의》
《한국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환경운동련합
홍사단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련대회의
세계평화련합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진각종》
원불교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련합회》
《한국교회련합》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련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 주교회의
천주교녀자수도회
장상련합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련합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평화3000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겨레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국천도교중앙총부》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대종교
유교성균관
동학민족통일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전남도남북교류협의회
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남북력사학자협의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동북아력사재단
《한국방송재단》
《한국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
《한국대학언론협회》
적십자사 총재

— 개별인사
정세균 《국회》 의장
박주선 《국회》 부의장
심재철 《국회》 부의장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김무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김도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서청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원유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윤영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리주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정양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최경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홍문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강창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김경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문화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박병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설 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원혜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리석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리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리태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추혜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김희욱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 당 전 공동대표
천정배 국민의 당 전 공동대표
박지원 국민의 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로희찬 정의당 원내대표
리시종 충청북도지사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송하진 충청북도지사
리락연 전라남도지사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최문순 남조선강원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리훈희 세종시시장
윤창현 광주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시장
류정복 인천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리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리해찬 로무현재단 이사장
문정인 김대중도서관 관장
권양수 전 통일부 장관
리재정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리종석 전 통일부 장관
림동원 전 통일부 장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류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백락청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명예대표
김상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명예대표
오종렬 《한국진보련대》 총회 의장
로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한상렬 목사
권락기 통일광장 회장(비전향장기수)
임방규 통일광장 대표(비전향장기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강만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민화협 전 상임의장)
김민하 세계일보 회장 (피스

코리아 대표)
문성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문익환목사의 아들)
권영길 전 국민주로동조합 총련맹 초대위원장
리수호 전 국민주로동조합 총련맹 전 위원장
단병호 전 국민주로동조합 총련맹 전 위원장
리갑용 전 국민주로동조합 총련맹 전 위원장
리석행 전 국민주로동조합 총련맹 전 위원장
신승철 전 국민주로동조합 총련맹 전 위원장
김영훈 전 국민주로동조합 총련맹 전 위원장
문진국 《한국로동조합총련맹》 전 위원장
장석춘 《한국로동조합총련맹》 전 위원장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 총련합 의장
지은희 《한국여성단체련합》 전 상임대표
안김정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리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전 상임대표
임윤옥 《한국여성로동자회》 대표
염윤석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의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리장희 《한국어국어대학교》 교수
김영진 민주로점상전국련합 의장
황 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석영 작가
립수경 전 《국회》의원
권오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량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고 은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남측위원회 이사장 겸 통일맞이 이사장
홍종선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남측위원회 이사장
조성우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이사장
리연희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사무총장
정명수 새 사회를 위한 연구모임 이사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최학래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
신원철 전대협동우회 회장
정의화 《새 한국의 비전》 이사장
정태인 정의구현 정책단 단장
한학자 세계평화련합 총재
박상권 세계평화련합 사무총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삼열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유명준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전국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총재
김선적 통일광부민족회의 의장
박남수 전 천도교중앙총부 교령, 《한국종교련합》 공동대표
김자동 립정기념사업회 회장
김영준 (혜문스님) 문화재 제자리찾기 대표
리지홍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김삼환 명성교회 담임목사
장종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전 회장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양병희 《한국교회련합》 전 대표회장
홍정길 남북나눔회장
진요한 조국평화통일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새 에덴교회 담임 목사
문대팔 《한국기독교평화 연구소》 소장
염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추기경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 대주교
최창무 대주교
문규현 신부
문정현 신부
함세웅 신부
전종훈 신부
김성곤 아시아종교평화회의 명예의장
최근덕 전 유교성균관 관장
송기인 신부
최사목 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전체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키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변인 담화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변인이 얼마전 《전체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키자》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 공개편지를 보내여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8.15를 전후하여 평양이나 개성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가질데 대한 공화국의 제안

이 현정세의 요구로 보나 우리 겨레의 통일의지로 보나 가장 시기적절하고 공명정대한 통일애국호소라고 인정하면서 적극 지지찬동한다고 담화는 지적하였다. 담화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이 열린다면 오늘과 같은 첨예한 동족대결의 극단적상태를 일소하고 민족운명개척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해나갈수 있는 건설적인 의견들과 합리적인 방도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될것이며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은 새로운 계도에 들어서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진정성》이니, 《통

일전선공세》니 하면서 입 삐뚤어진 소리만 하고있다고 담화는 규탄하였다. 담화는 북이 진정한 통일애국호소를 하고 뜨거운 동족의 손길을 내민것은 민족의 운명을 구하고 우리 겨레의 통일소원을 하루빨리 풀려는 최후의 선택이며 아량이라는것을 남측당국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당국은 한쪽각의 민족적량심이라도 있다면 더이상 백해무익한 민족대결정책을 버리고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8월의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담화는 요구하였다. 담화는 지금 해내의 온 겨레

가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주시한다는것을 명심하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고 용약 자주통일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오늘의 중대국면에서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신들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담화는 호소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원들은 8.15를 계기로 민족대회합에 적극 참가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애족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갈것이라고 담화는 언명하였다. 담화는 명명하신 백두의 천출위인을 모신 우리 겨레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며 통일조국의 새날은 반드시 밝아오야 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의 대단결의지를 보여주게 될 통일대회합

재미동포중남부지역련합회 성명 발표

재미동포중남부지역련합회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개최를 환영하여 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국해방 71돐을 맞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를 개최할데 대한 북의 제안을 가슴벅찬 기쁨으로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지적하였다. 은 겨레가 조국통일의 념원을 담아 이루어낸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조국통일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통일의 길에는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다고 성명은 밝혔다. 이러한 현실에서 통일대회합은 미제국주의에 자주적평화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가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의지를 보여주게 될것이라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또한 반통일보수세력이 장악한 남측의 망국적지배층에도 조국의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해 새 출발을 할 기회가 될것이라고 피력하였다. 재미동포중남부지역련합회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찍히면 죽는다》는 남조선영화의 제목이라고 한다. 이 말은 집권자 박근혜의 통치수법을 특징짓는 말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이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류승민의 강제사퇴라고 할 수 있다. 류승민은 지난 《대선》 시기 박근혜의 당선을 위해 뛰어난 《심복중의 심복》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그가 야당과 협력하여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여 《배신자》로 박근혜의 눈에 찍혔고 결국은 20대 《총선》을 계기로 《새누리당》에서 쫓겨났다. 얼마전에 다시 《새누리당》에 들어왔지만 원내대표직의 기는 싹 죽어 허울만 남은 상태로 말이다. 류승민의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박근혜는 조화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도 류승민과 함께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한류》한것으로 하여 박근혜의 눈에 찍혔고 악수는 고사하고 눈인사도 나누지 못하다가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패배와 함께 《동반사퇴론》에 휘말려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박근혜의 통치야마서 자그마한 자리라도 부지하려던 입은 적게 벌려야 하고 눈은 항상 땅에 박아

야 하며 손발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조금이라도 엇서다간 영남없이 박근혜의 눈에 찍힌다고 한다. 항간에서는 자기의 심기를 건드리는 상대방을 쏘아보는 박근혜의 차갑고 매서운 눈길에 대해 《눈에서 레이자가 나오는것 같다.》는 소리가 떠돈다.

《찍히면 죽는다》

빛으로 쳐다볼 때는 정말 어디다 눈을 뒤야 할지 모르겠더라.》라며 혀를 내둘렀다. 썩 이전인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의 경선시기 박근혜의 옆에서 나돌던 인물은 《박후보를 해석하는 코드는 (역린)이다.》

을 건드리면 그날로 아웃(out)이라고 하였다. 《역린》이란 룡의 턱아래 난 비늘을 다치면 룡이 크게 노한다는 전설에서 생겨난 말인데 《임금의 분노》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 보는바와 같이 박근혜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집권자의 위치에 세워놓고 아래 것들을 다스리고 다물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근혜의 자기파신, 독재기질은 권력을 쥐자마자 즉시 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인수위원회》 때는 《인사》문제에서 《주변말을 잘 안듣는다.》 말하면 레이자가 나온다고. 《청와대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검찰총장도 발가벗겨져 쫓겨난다.》는 소리가 나돌았다. 그래서 박근혜의 《인사정책》을 《나홀로 인사》, 《불통인사》, 《밀봉인사》라고 하였다. 《《새누리당》 대표는 《박후보가 차가운 눈

와대에 들어가면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니 땅대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신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집권총내부에서는 박근혜의 눈에 찍히지 않으려고 굽신거린다. 박근혜의 통치미에서는 《천박원로》인 김기춘이나 제스스로 《청와대의 내시》라고 한 리정현처럼 《복종형》, 《골종형》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통일부 장관 류길재처럼 《햇바지》로 불리우다 내쫓기는게 일쑤다. 살아남는 다른 한가지 방법은 일찌감치 자진사퇴하는것이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이 그랬고 2004년부터 박근혜의 연설문을 전문으로 써온 청와대 연설 기획비서관이 최근에 사퇴한것이 더욱 실감있다. 박근혜의 눈에 찍힐까 봐 조마조마한 가슴을 부여잡고 사느니 《자진사퇴》 형식으로 《명예》를 지키자는것이다. 이미 박근혜는 명을 다한 독재자다. 《박근혜퇴진》은 남조선인민들의 의지이고 《새누리당》내에서도 《박근혜탈당론》이 나도는 정도이다. 하지만 독사는 죽는 순간까지 독을 뿜는다고 박근혜의 독기는 단말마적인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 이제 또 누가 언제 《찍히면 죽는다.》의 주인공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치마두른 《제왕》에게 찍혀 죽느니 차라리 삼십륙계출행랑이 제일이라는 말이 나도는 남조선이다. 박희철

화약더미에 불을 달려는가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북침전쟁도 발광증이 도수를 넘어서고있다. 최근 군부호전광들은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 최전방지역에 설치된 《대북확성기》 시설을 년말까지 현재보다 2배가까이 늘일 계획》이라고 떠들면서 그 일환으로 《대북확성기》를 10여개 추가설치하겠다고 분주함을 피우고 있다. 이와 함께 얼마 전에는 해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라는자가 서해최전방지역에 《군사대비례세》 만전을 가해야 한다. 《도발에 처칠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화약더미에 불을 달려는가

별인사들의 련석회의를 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고있다. 공화국의 이러한 진정을 《상투적인 선전공세》로 밀어붙이고 돌아앉아서 있지도 않은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며 긴장을 격화시키는 호전광들의 행위는 온 민족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전면전쟁에 앞서 심리전이 개시된다는 초보적인 군사상식에 비추어볼 때 심리전의 중요한 수단인 《대북확성기》를 더 설치하겠다는 남조선군부의 행위는 전쟁을 부르는 호전광들의 망발이다. 쌍방의 무력이 첨예하게 대치되어있는 군사분계선과 서해최전방지역에 대한 남조선호전광들의 이러한 망동은 폭발성가스가 가득찬 밀실에 불망치를 휘둘러대는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전쟁광신자들의 호전적 광기는 이에만 그치지 않고있다. 지난달부터 남조선호전광들은 미군과 야합하여 공화국의 주요시설들을 기습타격하는 련합훈련을 진행하였다. 구름이 짙어지면 비가 오기마련이다. 최근에 와서 그 어느때보다 실질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격적인 침략전행훈련이 언제 실전으로 넘어가겠는지 장담하기 어렵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야말로 동족에 대한 극도의 대결망상에 사로잡혀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달려고 날뛰는 대결광신자들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하지만 도발자, 호전광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분별없이 날뛰다가는 제가 놓은 불에 제가 타죽게 된다는것을. 본사기자 황진옥



인권지옥에서 울리는 소리 《우린 죽음을 실습합니다》

5월 28일 서울메트로(지하철도) 2호선 구의역에서 김모(19살)군이 사망했다. 이 사고가 보도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승진 김군의 가방에서 나온 컵라면은 세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끼니를 굶어가며 일하던 김군은 끝내 《정규직》이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채 《현장실습생》으로 생을 마감했다. 현재 산업현장에 나가 있는 실습생은 대부분 현장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일을 강요받는 반면 휴식이나 근무시간리행 측면에서는 제대로 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업체는 현장실습생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이들이 감당하기 힘든 위험한 현장에까지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 현장실습생을 위한 제대로 된 법안을 내 놓지 않고있다. ... 련악한 환경에 놓인 현장실습생은 비단 김군만이 아니다. 2011년부터 거의 매년 현장실습생이 실습장소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고있다. 5월 7일에는 실습나간 기업현장에서 과도한 로동시간과 직장내 괴롭힘에 지친 한 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2011년 12월에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김민재(18살)군이 공장기숙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원인은 뇌출혈,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김군은 의식불명상태에 빠졌다. 문길주 금속로동조합 로동안전보건실장에 따르면 당시 김군이 근무하던 도장공장은 과거 로동자 3명이 백혈병에 걸린적이 있는 곳이다. 김군의 뇌출혈사고가 있는지 1년후인 2012년 12월 울산에선 한라건설 해상크레인작업선이 전복돼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중 1명은 현장실습생 홍성대(19살)군이였다. ...김군은 출근 첫날부터 숨진채 발견된 날까지 단 하루도 11시간미만으로 일한적이 없었다. 오전 11시 출근해야 하지만 《별칙》이라는 명목으로 거의 매일 2시간 일찍 출근했고 빠른 날은 오전 7시 30분까지 출근하기도 했다. 김군의 평균 수면시간은 5시간 남짓에 불과했다. 높은 강도의 로동과 적은 수면시간 탓에 김군은 입사 후 4개월만에 몸무게가 10kg이나 줄었다. 견디다 못한 김군은 사망하던 날 상사에게 퇴사의사를 밝혔고 그날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조선잡지 《주간동아》 2016년 7월 6일호에서 전재)

해외동포사회에 뻗친 추악한 마수 (1)

없어진 등지에 성한 일이 없듯이 과거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은 마가를 락염처럼 세계 각지로 흩어지기도 하였다. 그렇게 조국을 떠나간 동포들과 그 후손들이 해외동포사회를 이루게 되었다. 그들에게 조국은 어디인가? 외세에 의하여 분열된 조국의 현실은 해외동포들의 가슴에도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 하지만 남조선의 박근혜 《정권》은 민족의 통일일을 바라는 해외동포들을 저들의 불순한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 추악한 마수를 뻗치고있다. * * 남조선집권자 박근혜는 해외에 나가면 동포들을 만나는것을 《전례》처럼 여기며 《간담회》니, 《모임》이니 하는것들을 조직하곤 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자기편의 검은 흥심이 숨겨져 있다. 그가 해외동포들앞에서 뻗친 발언들을 다시 들어보자. 《동포사회가 《한반도신포로세스》와 《드래프트선언》을 적극 지지성원해달라.》, 《북이 핵개발을 포기할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적환경을 만들어달라.》, 《동포여

러분이 국제사회가 우리의 《대북정책》과 통일노력을 더욱 강력하게 지지할수 있도록 성원해달라.》... 동족의 자위적억제력에 대한 악담이고 자기들의 범죄적인 동족대결정책을 지지해달라는 구절이다. 세상에 나오기 바쁘게 《흡수통일모략문서》, 《실망프로세스》로 락인 받은 《대북정책》을 아직도 해외에 들고다니는 박근혜의 뻗뻗스러움도 그렇지만 해외동포들을 저들의 동족압살기도를 실현하는데 리용해보려는 추악한 심보는 더욱 가증스러운것이다. 민족의 망신인줄 모르고 돌아다니며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고아대는것은 또 얼마나 꼴불견인가. 최근에도 남조선집권자는 미국과 유럽령각시 《북의 인권상황이 우려스럽다.》느니, 《북의 핵개발과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위협요인》이라느니, 《북인권개선》이니 하는 망발들을 늘어놓았다. 《세월》호참사를 비롯하여 남조선을 최악의 인권불모지로 만든 박근혜가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박근혜가 아무리 터무니

없은 《인권》문제를 떠들어대도 해외동포들은 인민사랑, 청년중시, 미래사랑이 꽃피고있는 인권천국인 공화국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있다. 오히려 올해 공화국의 해외식당종업원들에 대한 집단라치사건을 통해 반인륜, 반인륜의 악한 것이 다름아닌 박근혜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알게 되었다. 보는것처럼 시커먼 속통을 간사한 웃음과 화려한 옷차림으로 감싼 박근혜의 입이 벌어질 때마다 대결악담이 툭툭 떨어지고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민족분렬의 상처를 헤집는 갈퀴질이 이어진다. 그 때문에 북남사이의 화해와 민족통일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지고. 박근혜의 속심은 해외동포들속에 자기의 대결정책에 대한 선전과 공화국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류포시켜 그들을 동족대결정책의 동조자로 만들자는것이다. 《재외동포는 《한국정부가 정한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만 하는 2등국민이 아니다.》, 《조선반도의 통일은 《흡수합방》이 아닌 남북화합이 정답이다.》, 《《흡수통

일》은 대박이 아니라 대재앙이다.》, 《미국의 불꽃놀이에 춤추는 칠분이 푸들마녀》, 《자주성과 주체성이 없는 박근혜는 리명박과 같이 나라를 통째로 외세에 가져다 바치는 매국노》... 까마귀도 내 땅 까마귀라든 반갑다고 했지만 시도 때도 없이 청승맞은 소리만 짚어대는 까마귀를 어느 누가 끔게 보겠는가. 오히려 해외동포들은 공화국의 자위적억제력이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준 경사중의 경사이고 천만년미래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최고의 안전장치라고 하면서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군사강국, 주체의 첨단과학기술강국을 이룩하고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비약하고있는것이》 오늘의 조선이 보여주고있는 현주소》이며 《세계는 조국의 발전을 통해 천지개벽된 세상이 어떤것인지 알게 될것이다.》라고 격찬하고있다. 삼천리강토우에 외세에 의하여 가로막힌 인위적인 분렬의 장벽을 걷어내기 위해 애쓰는 해외동포들속에까지 대결과 분렬의 장벽을 쌓아가는 박근혜, 과연 그가 말하는 민족통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본사기자 김정혁



